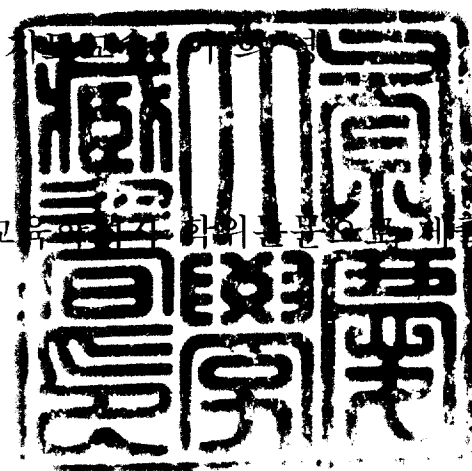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8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천 태 복

천태복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5년 8월 31일

주 심 교육학박사 황 희 숙



위 원 철 학 박 사 이 희 영



위 원 교육학박사 이 경 화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문제	7
3. 용어의 정의	7
4. 연구의 제한점	9
II. 이론적 배경	10
1. 갈등해결전략	10
가. 갈등과 갈등해결전략	10
나. 갈등해결전략에서의 성차	15
다.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16
2. 부모의 양육태도	18
가. 부모 양육태도의 개념	18
나.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21

다.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	22
3. 부모의 양육태도와 갈등해결전략	29

III. 연구방법31

1. 연구대상	31
2. 측정도구	32
가. 부모 양육행동 척도	32
나. 갈등해결전략 척도	34
3. 연구절차	36
4. 자료처리	37

IV. 연구결과 및 논의38

1. 연구결과	38
가.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38
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43
2. 논의	49
가.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49
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52

V. 요약, 결론 및 제언	56
1. 요약	56
2. 결론	57
3. 제언	58
참고문헌	60
부록	67

표 목 차

<표 III-1>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분포	31
<표 III-2>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	34
<표 III-3> 갈등해결전략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35
<표 IV-1>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이원변량분석	39
<표 IV-2>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 전략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 및 사후검증	40
<표 IV-3>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유형별 교차분석	43
<표 IV-4> 갈등해결전략 유형별 점수와 부모 양육행동간의 적률상관(남학생)	44
<표 IV-5>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갈등해결전략별 중다회귀 분석(남학생)	45
<표 IV-6> 갈등해결전략 유형별 점수와 부모 양육행동간의 적률상관(여학생)	47
<표 IV-7>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갈등해결전략별 중다회귀 분석(여학생)	48

그림 목차

<그림 IV-1> 성별×학년에 따른 회피전략 점수	41
<그림 IV-2> 성별×학년에 따른 지배전략 점수	41
<그림 IV-3> 성별×학년에 따른 양보전략 점수	42
<그림 IV-4> 성별×학년에 따른 협력전략 점수	42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Rearing Behavior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f Middle School Students

Cheon, Tae Bok
Educational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 rearing behavior and peer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f middle school students. To obtain this purpose, the following study problems were established.

First, is there a differ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between friends according to grade and gender?

Second, what influence does parental rearing behavior that middle school students recognize have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To conduct this study, 6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middle school students in Pusan and were collected. 580 questionnaires were used by excluding dishonest answers and students from non-intact family.

To measure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between friends, this study used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Measurement developed by Go Yoon Ju and Oh Won Jung (2000). To measure parental rearing behavior, this study

used Parental Rearing Behavior Measurement developed by Heo Myo Yeon (2000).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WIN (10.0 version) statistics program. To test reliability, it calculated Cronbachs alpha and conducted post hoc test and cross-tabulation analysis based on Two Way ANOVA and Scheffe method to solve the study problem 1. It also calculate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conduc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o solve the study problem 2.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use of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according to genders and grades of middle school students. Male students preferred avoidance, control, and compromising strategies while female students relatively preferred cooperation strategy. Students preferred more of cooperation strategy while reducing avoidance strategy as they go into upper grades.

Second, excessive interference, inconsistency, and abusive behavior of parents had significant explanation for avoidance strategy. Also, excessive expectation and negligent behavior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control strategy, parental abuse, negligence, and affectionate behavior was to compromising strategy, and supervising and affectionate behavio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cooperative strateg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on theory and practice were discussed with limitations. Finally, the research suggestions for further study were mad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개인은 성장함에 따라 일차적 집단인 가족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연령이 비슷한 동료집단인 친구와의 관계는 청소년의 사회관계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다. 특히 요즘의 청소년들은 현대 가족구조의 변화와 하루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학교나 학원에서 보냄으로 인해 또래집단과 접할 기회는 더 증가하여 부모의 영향보다 친구관계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게 되며(정선영, 2001), 청소년기는 또한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욕구가 강해지는 시기(이숙·김미란, 2001)로써 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또래집단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한편,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은 정체감 혹은 자기에 대한 판단을 확립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자기에 대한 판단은 곧 사회적 유능성의 획득을 의미하며, 이는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문제해결 기술이나 또래의 지지 등은 청소년의 효과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의 바탕이 된다. 또한 청소년은 또래와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협동이나 친밀감 등을 형성시키기 때문에(Hartup, 1989), 또래와 적절한 관계를 맺고 또래로부터 정신적인 지지를 얻는 등 친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이로 인해 발달 분야에서는 또래관계 또는 친구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친구관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이선영, 2001; 배선영, 2001; 김정윤, 2000; 신주혜, 1999). 친구관계란 두 사람이 상호 의존하는 개인적 수준의 관계(윤진, 1984)로, 친구관계의 경험은 대인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Sullivan, 1953).

한편, 갈등은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상대방이 좌절시켰거나 또는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각할 때 생기는 과정이다(Tomas, 1976). 이러한 갈등은 친구관계에서 필연적인 것으로, 초기 연구자들은 도래 갈등의 발생을 사회화의 실패로 인식하고 갈등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갈등은 모든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파괴적인 동시에 건설적인 잠재성도 가진다(Laursen, Hartup & Koplas, 1996)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이 갈등을 효율적으로 다루는 것은 친구를 사귀고 친구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Asher, Parker & Walker, 1996). 또한 갈등해결은 친구관계를 유지·존속하는 데에도 중요하다(Collins & Laursen, 1994). 결국, 개인의 적응상의 성공과 실패는 갈등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이희경, 1989).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서로의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해 갈등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들을 갈등해결전략이라 한다(Pollard, 1985).

Rahim(1985)에 의하면, 갈등해결전략은 협력 및 절충, 양보, 지배, 회피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유형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협력형은 양측의 의견을 공동선의 입장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켜 줌으로

써 갈등을 해소하려는 유형이고 둘째, 절충형은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양측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유형이며 셋째, 양보형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 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따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고 넷째, 지배형은 경쟁적 관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해 버림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며 다섯째, 회피형은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유형이다.

이러한 갈등해결전략은 개인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아동들이 서로 의견 차이를 보이는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면 사회적 조절활동이 요구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아동이 자기중심성에 벗어나 탈중심화 되며(Piaget, 1965), 또한 아동은 또래 갈등의 경험을 통해 사회적 이해를 촉진시키고(Dunn & Slomkowski, 1992),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며(Eisenberg & Garvey, 1981), 부정적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받는다(Katz, Kramer & Gottman, 1992). 그밖에도 회피전략을 더 많이 사용할 경우 남자 청소년들에게는 우울, 저조한 학업성취, 강박적-충동적 행동장애와 관련이 있고, 여자 청소년에게는 미숙한 행동, 과잉활동, 공격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타협은 불안, 우울, 심리적 고통, 강박적-충동적 장애와 부적인 관계가 있고, 우수한 학업성취, 복지, 자기존중감 등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indeman et al., 199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갈등해결전략은 개인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준다. 그러면 각 개인의 갈등해결전략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이 질문은 최근에 많

은 학자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온 연구 주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는 크게 개인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청소년의 친구간 갈등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공감능력이나 사회적 조망수용 능력(임연진, 1999), 탈중심화 능력(Selman, Schultz, Nakkula, Barr, Watts & Richmond, 1992), 인지적 신념, 귀인, 기대 등이 있으며(Karney & Bradbury, 1995), 환경적 요인으로는 친구관계와 부모 자녀관계가 있다(임연진, 1999).

이처럼 많은 요인들이 갈등해결전략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어 왔으나 그 중에서 비교적 많은 관심을 받아온 변인이 부모의 양육관련 변인이다. 그 동안 몇몇 연구자들이 자녀의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를 검토했다. 예를 들어, Dekovic과 Janssens(1992)는 부모가 온정적이고 권위적인 양육을 할수록 자녀는 또래친구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의 자녀는 또래 및 친구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정미현(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구에서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친사회적인 갈등해결전략인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김지현(2002)은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청소년은 문제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하였다. 또한, 정선영(2001)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가 온정·수용적일수록 아동은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회피,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부모가 허용·방임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부모양육과 관련된 그 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유아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부모-자녀관계가 갈등상황이 존재하는 친구관계와 각각의 관계가 갖는 강도와 상호의존적인 특성 등에서 유사한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며, 부모-자녀관계와 친구관계가 갖는 이런 유사점으로 인해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갈등해결전략과 관련하여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또 하나의 연구 주제는 갈등해결전략이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의 선택은 남아가 지배적이고 강제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해, 여아는 친 사회적이고 관계 지향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으며(김송이, 2001; 배선영, 2000; 정선영, 2001; Block, 1973; Chung & Asher, 1996; Rose & Asher, 1999),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에 있어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도 일부 보고되고 있다(한제인, 1994; Fonzi, Schneider, Tani & Tomada, 199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령에 따른 대인문제 해결능력의 선행연구로는 연령의 증가와 더불어 발달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과(박찬옥, 1986; 김은희, ; Marsh, 1982; Asarnow & Callen, 1985) 연령에 따른 차가 없다는 연구결과(Richard & Dodge, 1982; Guerra & Slaby, 1989)도 있어 연령에 따른 차이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박은진(1998)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대인간 갈등상황 인식 및 해결방안의 차이 연구에서 갈등상황 인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우호적인 목표를 선택하네, 갈등해결방안의 차이 분석에서는 외톨이 상황, 우정상황, 이해충돌상황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신주혜(1999)는 초등학교 4학년보다 중학교 2학년이 친구수와 단짝 친구수가 더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Weiring과 Lewis(1991)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성의 친구수와 만남의 시간이 증가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친구관계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발달한다는 것이 여러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로서 학년별 친구관계의 차이를 보는 연구들이 상당수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거나 친구관계만을 단편적으로 다룬 연구들로 친구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과의 관계를 학년에 따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분야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의 변화 양상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 발달간의 관계를 살펴본 대부분의 연구는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나 청소년의 갈등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청소년의 전반적 생활영역에 기초한 것과 부모와의 갈등에 주로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중요한 대인관계 맥락에서 겪는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이해하기 어려웠다(이주옥, 1992). 또한, 아동은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청소년기에는 친구관계도 부모양육태도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

려해 볼 때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검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성별과 학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사용하는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용어의 정의

가. 부모의 양육태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Berk(199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종승(1982)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한 다른 보호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내현적 행동이라고 정의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외현적·내현적 행동으로 정의하고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양육행동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나. 갈등해결전략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잘 관리하고 처리하는 대인기술을 갈등해결전략이라고 하였고(Unger, Kipke & Simon, 1998), Pollard(1985)는 아동이 친구관계에서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갈등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내에서 인식된 이러한 갈등을 개인의 목표에 따라 해결하려는 적절한 수단이나 다양한 방법들을 ‘갈등해결전략’으로 정의하고 이은혜, 고윤주와 오원정(2000)이 개발한 갈등해결전략 척도로 측정된 점수를 의미한다.

4. 연구의 제한점

첫째,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의 지각에만 의존하였기 때문에 부모의 지각을 측정하거나 실제 관찰을 하였을 경우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을 재는 많은 측정 도구 중 허묘연의 부모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가 널리 사용되기는 하나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도구를 사용한 결과에 일반화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K 중학교의 학생을 피험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표집의 대표성에 제한이 있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중학생이 아닌 다른 집단에 일반화 하기는 어렵다.

Ⅱ. 이론적 배경

1. 갈등해결전략

가. 갈등과 갈등해결전략

갈등은 인간이 서로 상호작용 하면서 살아가는데 겪는 보편적인 현상으로, Murray(1968)는 갈등이란 하나의 인간이 둘 이상의 상호 대립되는 행위에 종사하도록 동기가 부여된 상황이라고 정의하였고, Stoner(1978)는 갈등을 희소자원이나 작업 활동을 배분하게 되는 경우, 서로 다른 처치, 목표, 가치, 인지 등이 존재할 때 조직 내의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간이나 집단간에 일어나는 대립적 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Thomas(1976)는 갈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상대방이 좌절시켰거나 또는 좌절시키려고 하는 것을 지각할 때 생기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인간의 내면에서 상반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겪는 내적인 갈등을 의미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갈등이 두 사람의 사회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저항 사태로서 인식되어 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갈등이란 실제로 변화와 성장을 도와주는 촉매(Caplan & Caplan, 1974)로써 개인을 변화, 적응,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개인과 집단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Shantz & Hobart, 1989).

이처럼 갈등이 부정적인 측면만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적절한

처리방식에 의해 사회적 기술이 촉진될 수 있다는 많은 연구들이 제시됨으로써 갈등해결방식 또는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Pollard(1985)는 갈등해결전략이란 개인이 친구관계에서 서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자기의 이해를 방어하고 고양시키기 위하여 갈등 상황에서 상호작용을 성취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였다(한제인, 1994, 재인용). 몇몇 연구를 통해 또래와의 갈등상황에서 갈등해결전략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Rose와 Asher(1999)는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가장 친한 친구와 사이에서 자신의 이해관계와 친구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가상의 갈등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서 아동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아동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자극시킬지, 복수를 할지 혹은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사이좋게 지낼지 등의 목표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을 조절-절충, 자신의 이해관계 주장, 언어적 공격, 상황의 회피, 친구관계 종결 등의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배선영(2000)은 친구관계의 질과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로 여아가 남아보다 친구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의 욕구를 조절하는 절충 및 협력, 갈등을 회피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친한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또한 친구와의 갈등해결에 있어서 절충 및 협력 전략, 회피전략을 사용할수록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낮고 자신의 주장을 강요하는 지배전략을 사용할수록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김지현(2002)은 부모와의 애착 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연구 결과 아버지와의 애착 안정성은 양

보 전략과 협력 및 절충 전략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와의 애착 안정성은 협력 및 절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의 공감능력은 협력 및 절충 전략에서 개인의 고통을 제외한 공감의 모든 하위요인들이 영향력이 있는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한편, 갈등 해결 유형에 대한 개념적 모델을 제시한 Blake와 Mouton(1964)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들은 개인간 갈등 해결 유형을 강압, 문제 해결, 완화, 회피, 타협의 5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해결 유형의 하나인 강압(forcing)은 경쟁과 힘의 연관관계로 타인의 요구를 적게 반영하고 자신의 요구대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며, 둘째, 문제 해결(confronting)이란 협력과 조정의 과정으로 문제에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가능한 해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셋째, 완화(smoothing)는 갈등을 무시하거나 숨기기 위한 순응 행동을 말하고, 넷째, 회피(avoiding)는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철회 상태로 갈등 상황에서 물러나거나 벗어나는 것을 말하며, 다섯째, 타협(compromising)은 각 당사자의 기본 요구를 수용하는 간단한 해결을 말한다.

Rahim(1985)의 갈등 해결 유형은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인지의 주체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정도와 타인에 대한 관심 정도를 큰 축으로 놓고 개인의 행동방식이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에 따라 협력형(integrating), 절충형(compromising), 양보형(obliging), 지배형(dominating), 회피형(avoiding)의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유형은 나름대로의 장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협력형(또는 협조형)은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과 이해를 정확히 알려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집중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대안을 도출해 내는 유형으로 문제의 취지가 불명확하거나 복잡할 경우에 매우 적절한 방식

이라 할 수 있다. 즉, 양측의 의견을 공동선의 입장에서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양측의 관심사를 모두 만족시켜 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려는 유형이다. 따라서 협력형의 큰 장점은 단편적 측면에서 문제들을 다루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상반된 의견이 충돌된 상황에서는 문제를 다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둘째, 절충형은 자신과 타인의 공통된 관심분야를 서로 주고받기 위한 대안으로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고 외부나 제삼자의 개입, 협상, 또는 표결의 방법을 동원한다. 절충이란 쌍방이 다른 목표를 갖고 있거나 비슷한 힘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잦은 절충은 오히려 우유부단한 결과를 낳기도 하는데 그러한 이유로 절충은 민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문제해결의 창조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한다. 즉 다수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 양측이 상호교환과 희생을 통해 부분적으로 만족을 취함으로써 갈등을 관리하는 유형이다.

셋째, 양보(또는 순응)형은 타인의 관심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관심 부분을 양보 또는 포기라는 방식으로 배려를 해 준 후 무엇인가를 보답받을 수 있을 때 매우 적절해 보인다. 따라서 배려형의 장점은 협동을 가능케 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해결방식은 복잡하거나 악화된 문제에 있어서는 부적합하고 중요한 문제점을 소홀히 다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보형이란,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관심사는 버려 두고 상대방의 관심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상대방의 주장에 따름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넷째, 지배형은 자신에 대한 관심은 지나친 반면,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으로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선호하고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다. 지배형은 공적인 권위를 사용하여 복종을 유도하기 때문에 강압형이라고도 불려진다. 지배형은 받아들이기 싫은 해결책이 제시될 때 주로 쓰이며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분위기에서는 부적합하다. 지배형의 장점은 신속성이고 이로 인해 종종 상대방의 분노와 원망을 초래할 수도 있는 점이 단점이다. 다시 말해, 지배형이란 경쟁적 관계에서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압도해 버림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다섯째, 회피형은 갈등상태에서 얻게 되는 장점을 전혀 보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갈등상태에 대처하려 들지도 않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유형은 갈등상태를 다루어 나가지 못하고 단지 그 상황을 피함으로써 벗어나려 한다. 즉, 갈등문제로부터 물러나거나 이를 피함으로써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마저 무시하는 유형이다. 일반적으로 냉담, 퇴행, 무관심으로 나타나며 문제가 사소한 것이거나 피하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될 경우에 적합한 대안이다. 회피는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매우 중요한 문제마저 회피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각각의 갈등해결유형은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갈등관리유형 중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는 단언할 수 없다. 또한 배려형, 회피형, 지배형을 계속 사용 사용하는 것은 별로 효과적일 수 없으므로 이들 유형을 상황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때 갈등해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김창걸, 1994).

본 연구에서는 위의 이론에 근거하여 Rahim의 구분에 따른 갈등해결방식을 측정도구로 사용하였으며, 그 하위유형인 협력, 절충, 양보, 지배, 회피의 분류 방식에서 '협력'과 '절충'을 하나의 방식으로 묶어 네 가지 방식으로 개

넘화하여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구분은 ‘협력’과 ‘절충’의 구분이 공적인 사회 관계에는 적용이 잘 되나 가족이나 친구 관계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뚜렷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는 이은해, 고윤주와 오원경(2000)의 구분에 따른 것이다.

나. 갈등해결전략에서의 성차

친구간 갈등상황을 해결하고자 사용하는 전략에 있어서 성차가 보고되어 왔다(Rose & Asher, 1999; Sheldon, 1990). 남아는 여아보다 갈등에 대한 반응으로 위협이나 신체적 힘을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여아는 비교적 친사회적이고 또래 갈등을 완화시키려고 시도하거나 해결방법을 협상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남아와 여아는 또래 갈등에 대처하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해석이 있다(Miller, 1986; Danaher & Forbes, 1986; Crick, 1989). 즉 남아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의도나 계획을 예정대로 추구하는데 더 관심이 있고, 여아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더 치중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성차는 남아와 여아의 사회화의 차이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여아는 남아보다 더 친사회적인 행동이 격려되고, 언어적, 신체적 공격성의 표현이 제한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Chung & Asher, 1996).

국내 연구결과를 보면,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한제인(1994)의 연구에서는 분노 전략, 침착한 대화 전략, 회피/위축 전략에서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배선영(2000)의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에 비해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전략과 회피전략을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김지현(2002)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했으며, 특히 회피전략과 지배전략을 여학생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의 또래 및 친구관계의 갈등해결전략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나.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연령이나 학년에 따른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차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찾기가 어려우므로 유아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대인문제해결 능력을 알아본 연구로 McGillicuddy와 Delisi(1980)는 학령전 아동과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인문제해결 전략은 학령전 아동보다 1학년 아동이 사회적 상호작용 교환을 제안하는 전략이 증가하였으며 해결전략 점수도 높았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Asher와 Renshaw(1981)는 4가지 가설상황을 제시하여 아동의 문제해결전략과 목표에 대해 연구한 결과 아동의 반응은 연령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즉, 연령이 많은 아동 일수록 긍정적 또래 지향적 행동을 나타낸 반면, 어린 아동들은 적대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연령이 많은 아동은 어린 아동보다 새로운 또래에 대해 동정적이고 친구로서 상대하여 인간관계에 가치를 두는 반면 어린 아동은 인간관계를 무시하며 개인적인 관심에만 집중한다고 하였다.

Battistich와 동료들(1989)은 유치원에서 학령기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기술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종단적 연구를 실시한 결과 성에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친 사회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전략을 사용하였고 문제의 상황 인식 및 첫 시도가 실패했을 때에 새로운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로는 박찬옥(1986)이 6, 8,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인문제 해결사고를 연구한 결과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인문제 해결방안 점수가 높아졌고, 또한 대인문제 해결사고의 하위범주인 대인적 해결사고에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신체적 공격, 권위의존 등의 자기중심적 방안은 감소하고 계획, 설득, 뇌물 등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 증가하고 있어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기 반성적 사고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백인주(1987)는 5,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가설적 상황을 이용하여 문제해결의 목적과 전략을 연구한 결과 연령에 따라 전략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5세 아동이 상호작용 주도적이고 6세 아동은 친 사회적 유형의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목적에 있어서 5, 6세 아동 모두 우호적 독단적 목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김은희(1991)는 4세 아동에 비해 6세 아동의 해결방안의 수가 더 많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정윤주(1993)가 5, 7,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양식과 대인문제 해결력을 연구한 결과 대인문제 해결방안의 수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박은진(1998)은 아동의 연령에 따른 대인간 갈등상황 인식 및 해결방안의 차이 연구에서 갈등상황 인식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우호적인 목표를 선택하며, 갈등해결방안의 차이 분석에서는 외톨이 상황, 우정상황, 이해충돌상황에서 연령이 높아질수록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연령 증가에 따라 대인문제해결능력이 증가하지 않아 연령 집단간의 차이를 볼 수 없다는 연구들도 있다. Richard와 Dodge(1982)는 초등학교 2, 3학년, 4, 5학년을 대상으로 대안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능력을 알아본 결과 연령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였고, Guerra와 Slaby(1989)는 초등학교 2, 3학년, 5, 6학년을 대상으로 대인문제 해결능력을 연구한 결과 문제해결 방안의 수는 연령 증가와 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며, Pellegrini(1985)는 3학년에서 6학년 아동의 수단·목적사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연령증가에 비해 오히려 수단·목적사고가 4학년에서 6학년 아동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아동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문제해결능력은 증가하고, 문제해결방안의 내용면에서는 자기중심적 해결방안은 감소하고 상호적인 방안이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연령의 증가에 따라 대인문제해결능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전략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2. 부모의 양육태도

가. 부모 양육태도의 개념

인간이 태어나 성장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환경은 가정일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사회에 대한 지식을 얻고 대인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며 여러 가지 습관의 훈련을 받으면서 사회화의 기초를 다지고 성격의 근본이 형성된다(김지영, 1997).

이와 같이 부모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지식, 기술, 가치 등을 습득하도록 도와주고 자녀의 성격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민숙정, 1990). 특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양육행동은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주고, 자녀의 지적·정서적·성격적 여러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이숙, 1988).

한편, 부모의 양육행동 또는 태도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성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처럼 환경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정인, 2000).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Fagot(1994)는 양육이라는 개념을 부모가 자녀에게 육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지적인 성장을 위한 자극, 도덕적인 발달을 위한 훈육, 심리적인 적응을 위한 따스한 보살핌 등을 함축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Fishbein(1975)은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나 아동을 양육하는 태도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하나의 문화양식이며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가 기르고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양식이라 하였다. 또한 Berk(1994)는 양육태도를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하고, 자녀의 성격이나 행동 뿐 아니라 정서·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신혜경(1989)은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전반적 또는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말하며 자녀의 지적, 정서적 특성은 부모 및 양육자가 어떠한 태도를 키웠느냐 하는 양육태도에 크게 기인한다고 하였다.

한편, 유영주(1984)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 아버지는 도구적, 수단적 역할을 담당하고, 가정의 경제적 담당자로서 생활비를 조달하고, 사회적 지위의 표본이 되고 자녀의 좋은 동료적 역할을 하며,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단자의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머니는 자녀의 인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인성의 형태를 결정하고,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있어서 최초로 그리고 장기간의 대행자 역할을 담당하고, 건강과 위생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표현과 정서적 역할을 담당하며, 종교적 차원에 이르는 도덕적 교육의 담당자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서 어머니의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자율성을 더 많이 주고 협동적이며, 자녀와 동등한 관계를 누리고, 반면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어머니들은 보다 통제적이고 체벌을 가하는 편이었으며(Bayley & Schaefer, 1967), 또한 사회 계층이 낮을수록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보였다(Rapp, 1961). 그리고 어머니가 과보호적이면 자녀가 퇴행적·의존적인 사회적 특성을 보였으며 거부적인 경우도 퇴행적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나타내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으로서, 자녀에 의하여 지각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반응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육태도에 대해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양육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고 여겨지지만,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녀의 지적, 정서적 특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써 부모 및 양육자의 태도가 자녀의 인성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재현(2000)이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한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돕기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형태이며, 외현적·내현적 행동”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나.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

인간은 사물이나 사실을 존재하는 객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자신의 지각양식과 과거의 경험에 따라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Combs & Snygg, 1959). 부모의 양육태도 역시 자녀에게 있어서 실제의 양육태도와 달리 여러 가지로 다르게 지각될 수 있다.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살펴보면, Medinnus(1965)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들의 자아수용과의 연구에서 아동의 자아수용은 부모 자신이 지각한 양육태도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자녀가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생각한 자신들의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보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지원(1995)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자아수용과 관련지어 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자아수용이 낮은

아동일수록 부모의 양육태도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지각한다는 것이다.

김성연(1981)은 자녀의 정의적 측면에서 보다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모들이 진술한 양육태도보다도 자녀가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임을 보고하였고, 양육태도에 대한 부모와 자녀의 지각 차이를 비교한 연구에서도 (Katkocasky, 1967) 자녀의 내적 통제성을 예언하는 것으로는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 보다는 자녀 쪽에서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관련이 많다고 밝혔다. 즉 양육태도에 대한 지각은 부모와 자녀에게 각각 다르게 지각되며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양육태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실제 행해지는 부모의 양육태도의 영향력보다는 자녀 자신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아동이 주변의 환경을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보고를 통해 평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서 부모 자신의 보고보다는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논의되고 있다(이숙, 1988).

이러한 연구 결과들에서 부모의 실제 양육태도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자녀의 성격형성에는 실제의 양육태도 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에 의해 오랫동안 관찰되어져서 형성된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로서 비교적 안정된 것이고, 또 실제의 양육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 부모 양육태도의 유형

부모의 양육태도는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 문화적 배경 그리고 부모나 자녀의 요소 등과 깊은 관계를 가진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부모의 양육태도를 구성하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며 학자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를 최초로 체계화한 사람은 Symond(1949)로서 그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그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거부적도 아니고 지배적도 아니며, 과보호적도 아니고 복종적도 아닌 중간을 취하는 태도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Baldwin(1945)은 가정을 분위기에 따라 민주적 가정, 전제적 가정, 익애적 가정, 거부적 가정으로 구분하고 각 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 민주적 가정의 자녀는 협동적, 진취적, 경쟁적이며 통솔력, 계획성, 호기심이 현저하고 잔인성, 불복종성, 비협조성도 강하다. 둘째, 전제적 가정의 자녀는 예의가 바르고 책임감이 강하나 반항적, 불복종적, 공격적, 지배적인 경향이 많으며, 겁에 없고 고집이 센 편이다. 셋째, 과잉 애정적 가정의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집단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며, 자주성과 창의력이 결여된다. 넷째, 거부적 가정의 자녀는 관심을 끌게 하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며 거부성, 열등성, 투쟁성, 비현실성이 많아진다고 하였다(운병두, 1995, 재인용).

Schaefer(1959)는 정상적인 부모의 양육 태도를 자율-통제, 애정-적대로 분류하고 있다. Schaefer의 부모 양육 태도 유형을 중심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적-자율적 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 민주적, 수용적, 협동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태도

를 갖는 부모는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므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피한다. 둘째, 애정적-통제적 태도는 익애형의 양육 태도로서 애정을 주면서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주는 태도이다. 이러한 부모는 아동의 행동 범주를 결정하고 자녀의 어려움도 부모에 의해 극복된다고 믿으며,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할 때 좌절감을 느끼며, 새로운 탐색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반응, 습득의 기회를 축소시킨다. 셋째, 자율적-적대적 태도는 방임적인 양육 태도로서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동시에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둔다. 넷째, 통제적-적대적 태도는 독재적인 양육 태도로서 자녀에게 관대하지 않고 자녀의 행동을 처벌 또는 심리적 통제로 규제하는 태도이다. Schaefer(1959)는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과 수용을 주고 가족들의 표준적인 행동 분위기에서 스스로의 자유를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자녀가 타인을 따르고 신뢰하면서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도 주장이 강하고 우호적이며, 어떠한 일을 수행할 때도 전통적인 방식을 수용하면서 창조적인 발달을 할 수 있다고 하였다.

Baumrind(1966)는 부모의 권위적 태도와 독재적 태도가 자녀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설교하는 것은 같으나 실제로는 권위적 태도만이 그런 행동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권위적 태도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다른 자녀보다 더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며, 반면에 독재적 태도의 부모는 그들이 자녀에게 설교하는 것을 실제로는 그들 스스로 실행하지 않았으며 자녀의 흥미나 관심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허용적인 부모는 자녀에게 많은 요구를 하지도 않으며 자기 신뢰적인 행동이나 책임을 다하는 자녀의 행동을 강화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책임감과 성취동기가 부족한 경향을 보였

다. 즉 독재적인 태도와 허용적인 태도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독립적으로 자신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과 체험을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한다. Baumrind의 자녀 양육태도에 관한 세 가지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에 있어서 독재적인 통제를 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즉각적이며 장기적인 복종을 요구한다. 부모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녀를 복종하게 하는데 때로는 체벌이나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자녀에게 지켜야 할 규칙과 행동규범을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미리 설정해 놓고 절대적인 행동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그에 맞추려 한다. 부모의 말은 곧 법이며 부모의 행위가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것임을 믿도록 한다.

둘째, 허용적인 태도는 자녀를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며 자율성을 고무한다. 이들은 자녀를 이상적으로 다루며 권위를 과시하려 들지 않는다. 자녀에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자녀와 상의해서 행동에 대한 제한이나 방법을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행동을 가능한 한 스스로 규제할 수 있게 하고 통제를 피하며, 외적으로 규정된 기준에 복종하도록 권장하지 않는다. 셋째, 권위적 태도는 독재적 태도와 허용적 태도의 장점을 잘 조합한 태도이다. 권위 지향적인 통제는 어느 정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녀가 자율성을 갖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이상적인 설득, 명백한 권위, 또는 심리적 강화 등을 이용하여 자녀의 행동을 통제한다. 이러한 부모는 의사소통을 권장하고 부모가 행하는 방식에 대해 이유를 설명해 주며, 자녀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자녀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경청한다. 따라서 독재적 태도, 허용적 태도, 권위적 태도 중에서 자녀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양육태도는 권위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연구로 정원식(1974년)은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대칭적 입장에서 분

석하여 부모의 양육 태도를 성취-비성취, 개방-폐쇄, 친애-거부, 자율-타율의 4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가장의 심리적인 자극 또는 압력으로서, 하위변인별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비성취는 월등하게 높은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를 격려, 요구하며 항상 활동하기를 권장하고 박력과 끈기, 주의력을 집중시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둘째, 개방-폐쇄는 주위의 사물이나 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지 않고 대하며, 미지의 사태에 대하여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셋째, 친애-거부는 가정의 구성원이 서로 접촉하기를 원하며 상호간에 애정과 신뢰를 보여주고 협동하며 감정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표현되도록 허용해 주며 권위를 무조건 동조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는 정도를 말한다. 넷째, 자율-타율은 일상 생활에 있어서 개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며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기대하는 정도를 말한다.

한종해(1980)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수용·적대·거부, 민주·자율·권위·통제의 두 개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오성심, 이종승(1982)은 애정-적대, 자율-통제, 성취-비성취, 합리-비합리의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김영숙(1988)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애정적 태도, 거부적 태도, 통제적 태도, 익애적 태도, 모순·불일치태도 등 5가지로 분류하였다.

한편, 허묘연은(2000)은 그의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를 요인별로 ① 감독 ② 합리적 설명 ③ 비 일관성 ④ 과잉기대 ⑤ 과잉간섭 ⑥ 학대 ⑦ 방치 ⑧ 애정으로 정의하였다. 각 요인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감독 :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방과후에 누구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② 합리적 설명 : 자녀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갖고 있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보상이나 훈육적인 처벌이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어떤 행동이 용납되고 용납 안 되는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과 훈육적인 처벌을 하며,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동기에 관심을 갖고 들어주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태도가 포함된다.

③ 비 일관성 : 자녀에 대한 훈육의 기준에 일관성 없는 태도로서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태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같은 일에 대해서도 상황에 따라 화를 내기도 하고 안내기도 하는 것이나, 기분 내키는 대로 자녀를 대하는 행동을 말한다.

④ 과잉기대 :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갖는 태도로서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태도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녀에게 최고가 되라고 강조하고 성공이나 출세를 중요시 하며, 지적인 성취에 열성적인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⑤ 과잉간섭 :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어른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간섭하는 태도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면 자녀의 욕구보다는 부모의 기준이나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간섭이나 잔소리를 많이 하는 행동 등을 들 수 있다.

⑥ 학대 : 의도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인 손상이라는 결과가 남

는 양육자에 의해 취해지는 행위와 그 결과로서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사소한 잘못을 했거나, 때로는 이유 없이 상처가 남거나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말한다.

⑦ 방치 :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부터 도덕적, 영적인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즉 전반적인 영역의 발달에 무관심하고 훈육을 위한 칭찬이나 처벌이 결여되어 있고 정서적 측면에서 필요한 욕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⑧ 애정 : 자녀에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친밀감을 나타내며 자녀 중심적 이면서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로 정의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칭찬을 잘해 주고, 께안아 주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고,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따뜻한 위로를 해 주고,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는 행동을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성격형성과 대인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사회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됨으로, 아동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부모와의 관계는 지속되는 것으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2000)이 부모의 양육행동을 감독, 합리적 설명, 비 일관성, 과잉기대, 과잉간섭, 학대, 방치, 애정의 8개 영역으로 분류한 방식에 따라 부모 양육행동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알아보하고자 한다.

3. 부모의 양육태도와 갈등해결전략

개인은 어릴 때부터 주로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고,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하여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고(오성심, 이종승, 1982), 부모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를 지각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부모의 양육태도이며, 이는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에 영향을 미친다.

Shure와 Spivack(1978)은 부모의 양육형태가 가장 밀접하게 사회적 문제해결과 행동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Dekovic과 Janssens(1992)는 부모가 온정적이고 권위적인 양육을 할수록 자녀는 또래친구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은 덜하는 반면에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의 자녀는 또래 및 친구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Shaffer(1994)는 친구관계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을 양육자로서의 부모, 놀이친구로서의 부모 역할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첫째, 부모가 양육자로서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애착이론을 통해 설명할 수 있으며, 초기에 안정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이후에 공격성을 덜 보이고 또래에게 인기가 있다고 하였고, 둘째, 부모는 놀이친구로서 아동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사회학습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한데 부모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양한 놀이활동을 많이 한 아동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또래 놀이친구에게 반응적이며 조화로운 또래 및 친구관계

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김윤경(1998)은 아동의 또래지위 및 사회적 기술과 부모의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 인기 집단의 학생들이 무시 집단의 학생들보다 부모를 민주적으로 지각하고, 아버지를 덜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지각하며, 배척집단도 무시 집단에 비해 그들이 부모를 민주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정미현(2002)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이 친구간 갈등을 겪을 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친사회적인 갈등해결전략인 절충 및 협력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청소년은 문제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며(장휘숙, 2000), 아버지와 애착 안정성은 갈등해결전략 중 회피전략과 지배전략을 제외한 양보전략과 협력 및 절충전략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어머니와의 애착 안정성은 협력 및 절충전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긍정적 갈등해결방식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현, 2002).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를 직접 살펴본 선행연구는 없으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친구관계 형성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전략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K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대상의 선정은 본 연구가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간 갈등해결 전략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므로 중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집은 남·여 공학 학교의 18학급, 6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선 표집하였다.

설문조사는 본 연구자가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급의 교과 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다. 본 연구자의 지도하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검사를 실시한 다음,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부하여, 총 60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20부를 제외하고 부모가 모두 있는 학생들의 자료만을 선별하여 총 580부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 580명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분포는 <표 Ⅲ 1>과 같다.

<표 Ⅲ-1> 연구대상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분포

학년	남자		여자		계	
	N	%	N	%	N	%
1학년	90	29.7	97	35.0	187	32.2
2학년	109	36.0	87	31.4	196	33.8
3학년	104	34.3	93	33.6	197	34.0
계	303	52.2	277	47.8	580	100.0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자기 보고식의 질문지 형태로서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는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가. 부모 양육행동 척도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애정, 합리적 설명, 학대, 과잉간섭, 과잉기대, 감독, 방치, 비 일관성 등 8가지 하위요인을 측정하는 4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1)에서 매우 그렇다(4)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허묘연(2000)이 보고한 요인별 내적 합치도는 .68에서 .86이었다.

각 요인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애정’은 자녀에게 친밀감을 나타내고 자녀를 존중, 수용해주고 자녀의 요구에 민감한 태도를 말하며, 총 6문항(예: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합리적 설명’은 부모가 양육에 있어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이유를 가지고 이를 일관적이고 애정적인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총 5문항(예: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대’는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과도하거나 정기적으로 자녀에게 해를 주고 신체적 손상이 남기는 결과로, 총 6문항(예: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

로 벌을 주셨다)이다. ‘과잉간섭’은 자녀의 행동에 대한 통제나 제약으로, 자녀의 흥미나 능력에 관계없이 부모의 기준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개인적인 부분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총 7문항(예: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셨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과잉기대’는 자녀의 능력에 비해 과도한 기대수준을 가지고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지적인 성공을 강조하는 행동이며, 총 6문항(예: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으로 구성되고, ‘감독’은 자녀의 학교 내외의 생활이나 교우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로, 총 4문항(예: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셨다)으로 구성되고, ‘방치’는 자녀의 신체적, 지적인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잠재력을 충분히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총 5문항(예: 나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 일관성’은 자녀에 대한 훈육기준에 일관성이 없이 상황에 따라 다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의되며, 총 4문항(예: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낼 때도 있었다)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해 각 문항이 측정하는 하위 양육행동과 비슷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응답자가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여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역 채점 문항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구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신뢰도와 각 하위요인별 구체적인 문항번호는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하위요인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
애정	6, 14, 22, 30, 34, 42	6	.85
합리적 설명	3, 11, 19, 27, 41	5	.80
학대	7, 15, 23, 31, 35, 39	6	.81
과잉간섭	4, 12, 20, 28, 37, 40, 43	7	.78
과잉기대	5, 13, 21, 29, 33, 38	6	.83
감독	1, 9, 17, 25	4	.76
망치	8, 16, 24, 32, 36	5	.69
비일관성	2, 10, 18, 26	4	.60

나. 갈등해결전략 척도

중학생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혜, 고윤주와 오원정 (2000)이 개발한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예비조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16문항으로 제작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친구와 갈등이 생겼을 때 취하는 4가지 전략(회피, 지배, 양보, 협력 및 절충)에 대하여 각각 4문항씩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다” (1점)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의 내용을 보면, 회피전략은 갈등을 직접 해결하지 않고 피하는 방식으로 ‘친구와 나 사이에 기분 나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거나’, ‘서로 다툼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갈등해결전략이고, 지배전략

은 자신의 관심사가 우선이 되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과정이 포함된 방식으로 ‘가능하면 친구 생각보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거나’, ‘친구가 내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갈등해결전략이다. 또한 양보전략은 타인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친구 생각에 맞추거나’, ‘친구와 의견충돌이 있을 때 친구가 하고 싶은 쪽으로 생각을 바꾸는’ 갈등해결전략이며, 협력 및 절충 전략은 양자의 관심사가 모두 충족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으로 ‘친구와 내가 바라는 것이 다를 때 서로 조금씩 양보하거나’, ‘친구와 나 사이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구도 괜찮고 나도 괜찮은 방법을 찾는’ 갈등해결전략이다.

예비 분석 결과 회피전략 중 12번 문항의 신뢰도가 매우 낮게 나와 제외하고 3문항으로 분석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이 측정하는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영역과 비슷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역 채점 문항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구한 척도의 신뢰도와 문항번호 및 문항수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갈등해결전략 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번호 및 신뢰도

하위척도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
회피	1, 8, 15	3	.58
지배	3, 10, 13, 16	4	.71
양보	4, 7, 11, 14	4	.70
협력 및 절충	2, 5, 6, 9	4	.55

3. 연구절차

가. 예비조사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학교 1, 2, 3학년 남·여 각 10명을 대상으로 2004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의 적절성과 타당성 및 검사의 소요시간, 검사의 이해 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친구 간 갈등해결전략 질문지,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 질문지 순으로 이루어진 질문지의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25분 정도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문항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수정·보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본 검사

본 검사는 2004년 12월 22일에서 12월 30일까지 약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본 연구자가 1, 2,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당 학급 교과담당 교사에게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얻었다. 본 연구자의 주도하에 수업시간에 검사가 실시되었고, 검사를 실시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질문지에 응답하기 전에 별도의 유의사항과 바르게 응답하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10.0 version)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계처리 하였다.

첫째,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지각한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의 전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성별, 학년별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사용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별 및 학년에 따라 Scheffe' 방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는데 사후 검증 시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미응답 문항은 사례수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점수를 표준화하고 높은 점수를 유형화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할 때 동점인 경우는 사례수에서 제외한 후 분석하였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산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부와 모의 양육행동 상호상관을 분석할 결과 상관이 높게 나와 부와 모의 양육행동을 구분하지 않고, 부와 모의 평균점수로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이들이 사용하는 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문제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결과

가. 중학생의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연구문제1인 「중학생의 성별, 학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2)×학년(3)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 전략 하위영역 점수 각각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이원변량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회피, 지배, 양보 전략은 성별에 따라, 그리고 협력 전략은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학년간의 유의미한 상호작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이원변량분석

갈등해결전략	변량원	총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p
회피	성별	114.92	1	114.92	19.02	.000
	학년	28.56	2	14.28	2.36	.095
	성별×학년	25.72	2	12.86	2.13	.120
	오차	3468.26	574	6.04		
지배	성별	204.55	1	204.55	20.61	.000
	학년	19.23	2	9.61	.97	.380
	성별×학년	29.21	2	14.60	1.47	.231
	오차	5657.68	570	9.93		
양보	성별	200.29	1	200.29	20.19	.000
	학년	18.50	2	9.25	.93	.394
	성별×학년	29.91	2	14.95	1.51	.222
	오차	5655.10	570	9.92		
협력	성별	7.74	1	7.74	1.10	.296
	학년	99.52	2	49.76	7.04	.001
	성별×학년	16.65	2	8.32	1.78	.309
	오차	4005.91	567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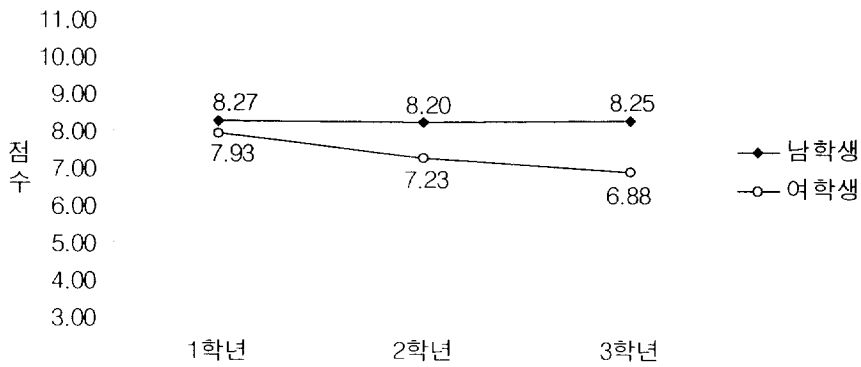
<표 IV-1>의 변량분석 결과에 따른 사후검증을 위하여 성별 및 학년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영역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Scheffe' 방식에 따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표 IV 2>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기술통계량 및 사후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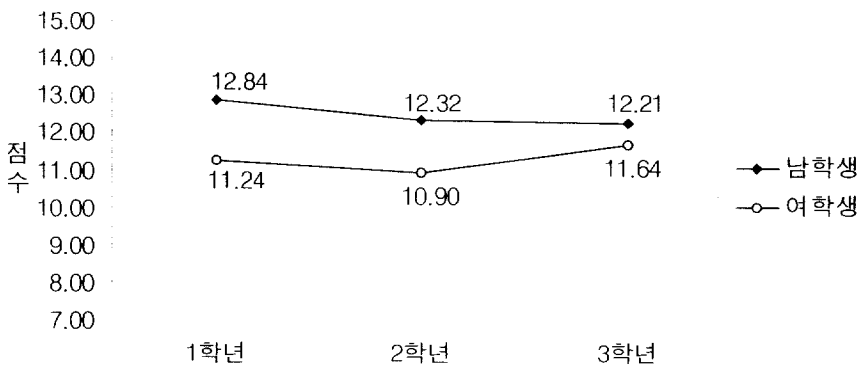
갈등해결전략	변인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scheffe ($\alpha=.05$)
회피	성별	남학생	303	8.24	2.45	남 > 여
		여학생	277	7.36	2.49	
	학년	1학년	187	8.09	2.44	차이없음
		2학년	196	7.77	2.39	
		3학년	197	7.60	2.66	
지배	성별	남학생	303	12.43	3.03	남 > 여
		여학생	273	11.27	3.29	
	학년	1학년	183	12.01	3.09	차이없음
		2학년	196	11.69	3.36	
		3학년	197	11.94	3.15	
양보	성별	남학생	301	10.67	3.21	남 > 여
		여학생	275	9.51	3.09	
	학년	1학년	186	10.32	3.18	차이없음
		2학년	196	9.96	3.26	
		3학년	194	10.08	3.17	
협력	성별	남학생	301	13.68	2.56	차이없음
		여학생	272	13.42	2.81	
	학년	1학년	183	13.04	2.62	1=2 < 3
		2학년	194	13.55	2.78	
		3학년	196	14.06	2.57	

여기에서 회피 전략, 지배 전략, 양보전략 점수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협력 전략의 경우 1, 2학년에 비하여 3학년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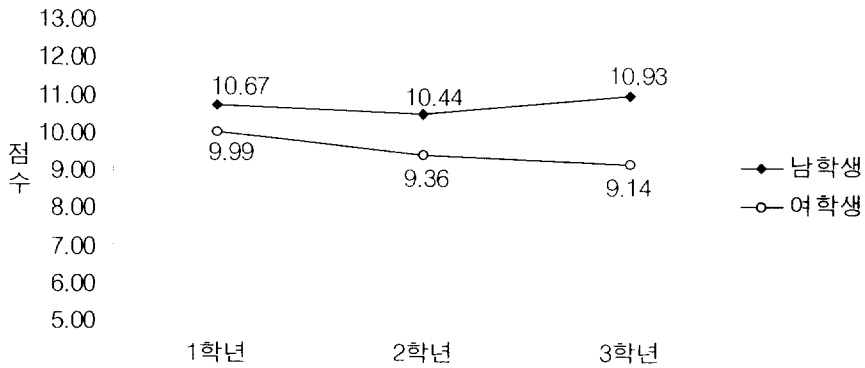
갈등상황에서 회피적이거나, 지배적인 전략 혹은 동시에 양보 전략을 폭 넓게 사용함을 의미하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협력적인 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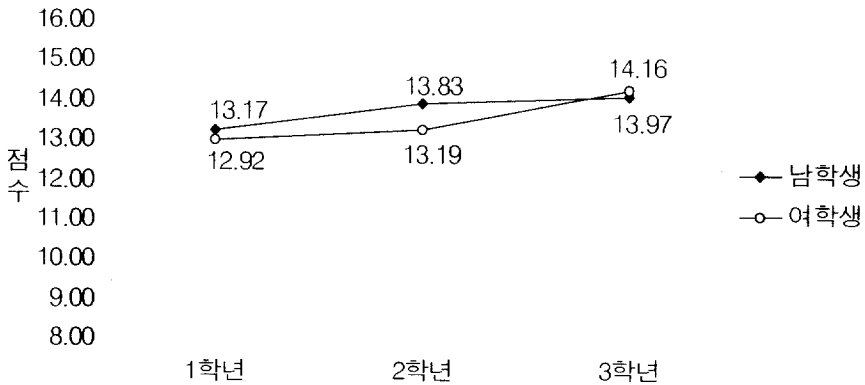
[그림 IV-1] 성별×학년에 따른 회피전략 점수



[그림 IV-2] 성별×학년에 따른 지배전략 점수



[그림 IV-3] 성별×학년에 따른 양보전략 점수



[그림 IV-4] 성별×학년에 따른 협력전략 점수

계속해서 <표 IV-3>은 연구대상 중학생 개인에 따라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 협력 전략 점수를 표준화하여 보다 높은 점수를 바탕으로 갈등해결 전략을 유형화하고 이를 남녀 학생별로 구분하여 학년에 따라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갈등해결 전략 유

형별 빈도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의 경우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으로써 변량분석 결과와 유사함을 나타내었다

<표 IV-3> 성별과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유형별 교차분석

성별	학년	갈등해결전략 유형				전체	X ²	p
		회피	지배	양보	협력			
남학생	1학년	23(26.7)	26(30.2)	23(26.7)	14(16.3)	86(100.0)	1.94	.925
	2학년	30(27.8)	32(29.6)	25(23.1)	21(19.4)	108(100.0)		
	3학년	23(23.0)	28(28.0)	26(26.0)	23(23.0)	100(100.0)		
	전체	76(25.9)	86(29.3)	74(25.2)	58(19.7)	294(100.0)		
여학생	1학년	31(33.3)	22(23.7)	19(20.4)	21(22.6)	93(100.0)	13.46	.036
	2학년	16(19.3)	22(26.5)	26(31.3)	19(22.9)	83(100.0)		
	3학년	18(20.0)	24(26.7)	15(16.7)	33(36.7)	90(100.0)		
	전체	65(24.4)	68(25.6)	60(22.6)	73(27.4)	266(100.0)		

특징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하여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남학생-19.7%, 여학생-27.4%), 남녀 학생 모두 학년이 증가할수록 협력적 해결전략 유형을 채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즉 남학생의 경우, 1학년-16.3%, 2학년-19.4%, 3학년-23.06%의 비율이며, 여학생의 경우 1학년-22.6%, 2학년-22.9%, 3학년-36.7%로 협력적 해결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회피 전략 또한 1학년(33.3%)에 비하여 2학년(19.3%), 3학년(20.0%)은 급격히 빈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 또한 특징적이다.

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아래에서는 연구문제2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모의 양육행동 8개 하위영역 점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갈등해결전략 각 하위영역 점수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단계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단,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있어 성별간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남녀 학생 별로 구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1) 남학생-부모의 양육행동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표 IV 4>는 먼저,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점수와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영역별 점수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전략유형과 부모 양육행동간에는 상관의 정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으며, 전략유형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은 정적 혹은 부적 상관이 교차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쌍은 지배전략과 과잉기대 양육행동($r=.202$)이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쌍은 양보전략과 합리적 설명 양육행동($r=.002$)이다.

<표 IV 4> 갈등해결전략 유형별 점수와 부모 양육행동간의 적률상관 (남학생)

전략유형	부모 양육행동							
	감독	합리적 설명	비 일 관성	과잉 기대	과잉 간섭	학대	방치	애정
회피	.184**	.022	.029	.155**	.091	.125*	.50	.012
지배	.122**	.131*	.024	.202**	-.038	-.027	.034	.154**
양보	.021	.002	.123*	.123*	.186**	.182**	.166**	-.051
협력	.149*	.118*	.018	.078	.066	-.003	.016	.113

* $p < .05$, ** $p < .01$

<표 IV-5>의 갈등해결전략별 중다회귀분석 결과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전체적인 경향으로 8가지 부모의 양육행동은 갈등해결전략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5.2%(양보전략)~10.8%(지배전략)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전략 유형에 따라 각기 1~3가지의 하위 양육행동들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갈등해결전략별 중다회귀분석 (남학생)

종속변인	투입변인	R	R ²	R ² 추가	β	t	p
회피	감독	.199	.040	.040	.199	3.30	.001
	학대	.252	.063	.024	.155	2.60	.010
	과잉기대	.275	.076	.012	.116	1.87	.062
	비일관성	.294	.086	.011	.115	1.75	.081
	과잉간섭	.299	.090	.003	.071	1.96	.339
	방치	.302	.091	.002	.053	.69	.487
	애정	.302	.091	.000	.004	.05	.956
	합리적설명	.302	.092	.000	.004	.05	.955
지배	과잉기대	.193	.037	.037	.193	3.19	.002
	애정	.255	.065	.028	.168	2.81	.005
	방치	.281	.079	.014	.147	1.99	.047
	과잉간섭	.304	.092	.013	-.136	1.95	.051
	감독	.313	.098	.006	.082	1.26	.206
	합리적설명	.318	.101	.003	.076	.98	.325
	학대	.313	.105	.003	-.071	.97	.333
	비일관성	.328	.108	.003	.070	.97	.331

양보	학대	.180	.033	.033	.180	2.99	.003
	과잉간섭	.201	.041	.008	.099	1.49	.137
	합리적설명	.208	.043	.003	.055	.87	.381
	방치	.218	.047	.004	.080	1.05	.292
	애정	.224	.050	.003	.074	.88	.376
	과잉기대	.226	.051	.001	.035	.50	.613
	감독	.227	.052	.000	.025	.36	.716
	비일관성	.228	.052	.000	-.003	.04	.968
협력	감독	.174	.030	.030	.174	2.86	.004
	과잉간섭	.199	.039	.009	.096	1.58	.114
	애정	.215	.046	.007	.092	1.37	.171
	방치	.237	.056	.010	.128	1.66	.097
	학대	.248	.062	.005	-.091	1.22	.223
	비일관성	.249	.062	.000	-.027	.36	.712
	기대	.250	.062	.000	.016	.23	.817
	합리적설명	.250	.063	.000	.015	.19	.846

전략유형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회피전략의 경우 부모의 감독(4.0%), 학대(2.4%) 행동이, 지배전략의 경우 과잉기대(3.7%), 애정(2.8%), 방치(1.4%) 행동이 각각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보전략과 협력전략의 경우 각각 학대(3.3%)와 감독(3.0%) 행동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2) 여학생-부모의 양육행동이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표 IV-6>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별 점수와 부모의 양육행동 하위영역별 점수간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남학생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전략유형과 부모 양육행동간에는 상관의 정

도가 그다지 크지는 않으며,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쌍은 협력전략과 감독 양육행동($r=.315$)이며, 가장 낮은 상관을 보인 쌍은 협력전략과 과잉간섭 양육행동($r=.001$)이다.

<표 IV-6> 갈등해결전략 유형별 점수와 부모 양육행동간의 적률상관 (여학생)

전략유형	부모 양육행동							
	감독	합리적 설명	비 일 관성	과잉 기대	과잉 간섭	학대	방치	애정
회피	-.041	-.013	.199**	.174**	.221**	.119**	.162**	-.004
지배	.036	.077	.027	.204**	.093	.128*	.094	.077
양보	-.094	-.019	.050	-.015	.035	.061	.157**	.024
협력	.315**	.278**	-.048	.148*	.001	-.086	-.130*	.300**

* $p < .05$, ** $p < .01$

<표 IV-7>의 갈등해결전략별 중다회귀분석 결과의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면, 먼저 전체적인 경향으로 8가지 부모의 양육행동은 갈등해결전략에 따라 전체적으로 약 5.4%(양보전략)~15.3%(협력전략)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으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하위 양육행동은 각기 갈등해결전략에 따라 1~3가지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부모의 양육행동에 의한 갈등해결전략별 중다회귀분석 (여학생)

종속변인	투입변인	R	R ²	R ² 추가	β	t	p
회피	과잉간섭	.242	.058	.058	.242	4.00	.000
	비일관성	.273	.074	.016	.137	2.10	.036
	과잉기대	.283	.080	.006	.086	1.26	.206
	방치	.287	.082	.002	.050	.74	.455
	애정	.293	.086	.003	.074	.98	.328
	학대	.295	.087	.001	-.041	.57	.569
	합리적설명	.296	.087	.001	.034	.43	.665
	감독	.296	.087	.000	-.010	.14	.888
지배	과잉기대	.195	.038	.038	.195	3.16	.002
	합리적설명	.216	.047	.009	.094	1.52	.128
	방치	.237	.056	.10	.112	1.60	.109
	비일관성	.251	.063	.007	-.093	1.33	.182
	학대	.262	.069	.006	.090	1.25	.211
	애정	.268	.072	.003	.079	.89	.372
	과잉간섭	.271	.074	.002	.051	.68	.495
	감독	.273	.074	.001	.459	.45	.647
양보	방치	.146	.021	.021	.146	2.36	.019
	애정	.191	.037	.015	.148	2.00	.046
	감독	.212	.045	.008	-.104	1.48	.139
	과잉기대	.225	.050	.006	-.079	1.21	.227
	학대	.231	.054	.003	.064	.90	.368
	합리적설명	.232	.054	.000	.017	.20	.841
	과잉간섭	.232	.054	.000	.010	.13	.897
	비일관성	.232	.054	.000	-.006	.08	.934
협력	감독	.301	.091	.091	.301	5.03	.000
	애정	.353	.125	.034	.204	3.13	.002
	과잉기대	.373	.139	.015	.121	2.06	.040
	합리적설명	.381	.145	.006	.103	1.29	.196
	방치	.385	.148	.003	.071	.93	.349
	학대	.389	.151	.003	-.066	.97	.331
	과잉간섭	.390	.152	.001	.039	.55	.577
	비일관성	.391	.153	.000	-.018	.26	.788

전략유형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회피전략의 경우 부모의 과잉간섭(5.8%), 비밀관성(1.6%) 행동이, 지배전략의 경우 과잉기대(3.8%) 행동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보전략은 방치(2.1%), 애정(1.5%)의 두 가지 양육행동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특징적인 결과는 협력전략에 미치는 영향으로 부모의 감독 행동이 9.1%, 애정 행동이 3.4%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감독과 애정이라는 두 가지의 양육행동만으로 12.5%의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2.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이 어떻게 다르며, 또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가.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먼저 중학생의 성별에 따른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중학생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여학생은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Chung과 Asher(1996)의 연구결과와 중·고등학생의 경우 갈등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결하려는 '지배'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이은혜, 고윤주와 오원정(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보다 능동적 갈등 격화방식을 더 사용한다는 이주옥(1994)의 연구결과와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서 남아가 여아에 비해 상대방보다 자신의 욕구충족에 관심이 많은 갈등해결전략인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한 정선영(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회피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우 요인에서 도피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홍문표(1996)의 연구결과와 아동의 친한 친구간에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서 지배전략과 양보전략은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배선영(2000)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사회화와 부모의 양육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데, Mills와 Rubin(1990)은 여아에 비해 남아의 공격성은 사회적으로 묵인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또한 여아가 양육적이고 관계 지향적으로 사회화되어 대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결전략을 사용하는 반면 남아는 성취 지향적으로 사회화되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해결전략을 사용한다는 Block(1973)의 주장에 기초해 본다면, 갈등 상황에서 남학생은 자신의 욕구 충족을 우선시하는 갈등해결전략인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여학생은 타인과의 조화와 협력을 우선시하는 갈등해결전략인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나 부모들이 전통적인 성 역할에 입각한 지도나 양육행동

보다는 양성적인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것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중학생의 학년에 따른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증가할수록 회피전략의 사용 경향은 줄고,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초등학교 2, 3학년과 4, 5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갈등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능력이 연령증가와 차이가 없다는 Richhard와 Dodge(1989)의 연구와 초등학교 2, 3학년과 5,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문제해결 방안이 연령증가와 상관이 없다는 Guerra와 Slaby(1989)의 연구나 사회적 전략을 선택하는데 아동의 연령에 차이가 없다는 강상미(1992)의 연구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대인문제 해결전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상호작용 교환을 제안하는 전략이 증가하고, 해결전략 점수도 높다는 McGillicuddy와 Delisi(1980)의 연구결과와 나이트 아동은 긍정적 또래 지향적 행동을 나타내고, 새로운 또래에 대해 동정적이고 친구로서 상대하여 재미있게 놀며, 인간관계에 가치를 둔다는 Asher와 Renshaw(1981)의 연구결과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친사회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Battistich와 동료들(1989)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대인문제해결 사고에서 자기 중심적인 방안은 감소하고, 자신과 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안이 증가한다는 박찬옥(1986)의 결과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갈등상황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우호적인 목표를 선택한다는 박은진(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학습할

기회가 많아져 갈등상황을 회피하거나 자기중심적이고 권위적인 갈등해결 방안보다는 상호적이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많이 고려하는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이에 따른 적절한 상담방법과 갈등해결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나.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부모의 과잉간섭, 비 일관성, 학대행동은 갈등해결전략 하위영역 중 회피전략과 부모의 과잉기대, 방치행동은 지배전략과 각각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으며, 부모의 학대, 방치, 애정행동은 양보전략과 감독 및 애정행동은 협력전략과 유의미한 설명력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감한 양육태도를 보인 부모의 아동이 갈등상황에서 능동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한다는 Kindler와 Grossman(1997)의 결과와 아동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용적인 부모의 양육행동이 아동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며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하고 협동심과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을 발달시킨다는 Maccoby(1980)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부모와의 애착과 청소년의 대처행동 양식과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애착이 안정될수록 청소년은 문제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장휘숙(2000)의 결과와 부모의 애착 안정성과 친구간의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애착 안정성은 갈등해결전략 중 양보와 협력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김미현(2002)의 연구와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아동들은 부모의

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할수록 친사회적인 갈등해결전략인 절충 및 협력 전략을 사용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지배전략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정미현(2002)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Dekovic과 Janssen(1992)은 부모가 온정적이고 권위적인 양육을 할수록 아동은 또래 및 친구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은 덜 하는 반면에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부모의 아동은 또래 및 친구의 행동에 대해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것으로 보고하였고, 부모의 신체적 학대, 거부, 방임, 과잉통제, 과잉기대, 비일관성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반면에 부모의 애정적, 합리적 설명, 감독 등 긍정적인 양육행동은 다양한 청소년기의 문제행동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손석한 외, 2001)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한편, 부모의 과잉기대와 방치행동이 갈등해결전략 중 지배전략에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방임적이고 무관심하며 통제부재의 양육행동은 아동의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다고 한 Rubin과 그의 동료들(1995)의 결과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허용·방임적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배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고 보고한 정선영(2000)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 수용해 주는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관심과 상대방의 관심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반면,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 기본적인 양육행동이 결여되어 있거나 능력에 비해 과

또한 기대수준을 갖고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갈등상황을 피하고자 하는 회피전략과 자신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일의 동기보다는 결과만 중시하고, 일관적이지 못한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을 지녔다고 지각할수록 타인의 관심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관심 부분을 포기하는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지나친 기대와 무관심으로 인한 방치는 부모의 역할을 등한시함으로써 청소년의 공격성을 조장하고, 결국 자신의 욕구 충족에만 집중하는 갈등해결전략인 지배전략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행동 중 감독과 애정행동이 협력전략에서 높은 설명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의 긍정적이고 친사회적인 양육행동인 감독과 애정행동이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여학생들이 아동기부터 양육적이고 관계지향적으로 양육되기 때문에 성장할수록 타인과의 조화와 협력을 중요시하는 정서가 형성되어 친구와의 갈등상황에서도 조화와 타협을 우선시하는 협력전략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국, 청소년들이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바람직한 태도로 청소년들을 양육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친구관계에도 민감한 관심을 기울여 청소년들이 갈등을 바람직하게 다루어 잘 적응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볼 때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 관련된 변인을 밝혀내기 위해 청소년

년을 둘러싼 가장 직접적인 양육환경인 부모의 양육행동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청소년이 친구 또는 또래간 갈등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상황에서 친 사회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에 대한 기준도 같이 마련함으로써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폭력문제는 개선도 중요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가정환경, 학교환경, 그리고 내적환경에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가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을 적절히 발달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및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중학생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사용은 학년 및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으로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한 후 600부를 회수하여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부모가 모두 있는 학생들의 자료만을 선별하여 총 580부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학생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해, 고윤주와 오원정(2000)이 제작한 ‘갈등해결전략 척도’를 사용하였고,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허묘연(2000)이 개발한 ‘부모양육 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10.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 1을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과 Scheffe' 방식에 따른 사후검증 및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연구문제 2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 산출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성별 및 학년에 따라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에 차이가 있었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전략과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였고, 상대적으로 여학생은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이 증가할수록 회피전략의 사용 경향은 줄고,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이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행동 중 과잉간섭, 비 일관성, 학대행동은 회피전략과 과잉기대, 방치행동은 지배전략과 각각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으며, 부모의 학대, 방치, 애정행동은 양보전략과 감독 및 애정행동은 협력전략과 유의미한 설명력을 지니고 있었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에 기초하여 내린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은 성별 및 학년에 따라 친구간 갈등상황에서 사용하는 해결전략에는 차이가 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회피전략, 지배전략, 양보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상대적으로 여학생은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한다. 또한 학년이 증가할수록 회피전략의 사용 경향은 줄고, 협력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둘째, 부모의 양육행동은 중학생이 사용하는 갈등해결전략에 영향을 준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존중, 수용해 주는 자율적인 태도로 양육한다고 지각할수록 협력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부모가 지나친 기대와 무관심으로 인한 방치, 일관적이지 못한 비합리적인 양육행동을 지녔다고 지각할수록 지배전략을 사용한다.

3.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에 기초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지역의 중학교 1,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이들과 특성을 달리하는 집단에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각에만 의존해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였으나, 양육행동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은 실제 부모의 양육행동과 다를 수 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평정한 양육행동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갈등해결전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부모의 양육행동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 각 개인의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발달하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청소년의 성격 특성 등 청소년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에 대한 검

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갈등해결전략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김경희(1986). **아동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송아(2001). **또래 지위와 친구관계에 따른 아동의 또래갈등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1991). **학령전 아동의 대인간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12(1), 52-67.
- 김재현(2000).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 및 의사소통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2002). **부모와의 애착안정성 및 청소년의 공감능력과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창걸(1994). **교육행정학신론**, 서울: 형설출판사.
- 민숙정(1990).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성취동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진(1998). **아동의 연령에 따른 대인간 갈등상황 인식 및 해결방안의 차이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찬옥(1986). **아동의 대인문제해결 사고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인주(1987). **유아의 동료간 인기도와 사회적인 문제해결전략 및 목표와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선영(2000).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주혜(1999). **단짝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적응 : 초등학생 4학년과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성심, 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간의 관계. **행동과학연구소, 연구노트**, 11(1), 1-15.

유영주(1984). **신 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윤병두(199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아동의 욕구충족 지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진(1984). 우정관계의 본질과 발달단계에 따른 변화. **사회심리학연구**, 2(1), 94-113.

이선영(2001). **아동 및 청소년의 친구관계 발달과 학교적응**.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숙(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숙·김미란(2001). 성과 학년에 따른 청소년의 친구관계, **생활과학연구**, 11집, 14-25.

이윤우(2003).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성취동기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혜·고윤주·오원정(2000). 청소년기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친구의 지원 및 갈등해결.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3), 105-121.

이주옥(1994).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질적 연구 : 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주옥(1992). 청소년의 대인 갈등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 아버지, 어머니

니 및 동성 친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포항전문대 사회경제연구소
논문집, 18(1), 197-221.

이중석(1994). 10대의 정심 병리(上). 청주: 협신사.

이지영(1997). 유아의 성과 연령에 따른 또래간 요구전략 및 반응.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석한,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
과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605-615.

정미현(2002). 부모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탄력성 및 친구간 갈등해
결전략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선영(2001).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친구간 갈등해결전략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윤주(1993). 아동의 인지양식과 대인문제해결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정원식(1974). 교육환경론. 서울: 배영사.

정인(2000). 부모의 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철(2000). 청소년의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협상전략과 사회적 유능성
과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교육심리연구, 15(1), 25-47.

한제인(1994). 아동의 사회측정 지위에 따른 갈등해결전략 사용에 따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종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혜원(2003). 아동의 정서표현 의도와 친구간 갈등해결전략.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보연(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홍문표(1996). **고등학교 학생의 계열별 학교생활의 갈등요인과 갈등표출 방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ldwin, A. L. (1945). Patterns of parent Behavior. *Psychology Monograph*, 58(3), 126-128.

Baumrind, D. (1966). Effect of authoritative parental control on behavior. *Child Development*, 37, 889~891.

Blake, R. R., & Mouton, J. S. (1964). *The managerial grid*. Houston, Texas: Gulf publishing.

Block, J. H. (1973). Conceptions of sex roles: some cross cultural and longitudinal perspectives. *American Psychologist*, 56(2), 438-447.

Caplan, F., & Caplan, T. (1974). *The power of play*. New York: Anchor Books.

Chung, T., & Asher, S. R. (1996).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peer conflict situation. *Merrill-Palmer Quarterly*, 42, 125-147.

Collins, W. A., & Laursen, B. (1994). Interpersonal conflict during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15, 197-209.

Combs, A. W., & Snygg, D. (1959). Individual behavior: A perceptual approach to behavior, N.Y.: Harper & Brothers.

De'kovic, M., & Janssens, J. M. A.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 Dodge, K. A., & Frame, C. L. (1982). Social cognitive biases and deficits in aggressive boys. *Child Development*, 53, 620-665.
- Dunn, J., & Slomkowski, C. (1992). Conflict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understanding.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pp. 70-9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isenberg, A. R., & Garvey, C. (1981). Children's use of verbal strategies in resolving conflicts. *Discourse Processes*, 4, 149-170.
- Fishbein, M. S.,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 Fonzi, A., Schneider, B. H., Tani, F., & Tomada, G. (1997). Predicting children's friendship status from their dynamic interaction in structured situation of potential conflict. *Child Development*, 68(3), 496-506.
- Hartup, W. W. (1989). Social relationships and their developmental significance. *American psychologist*, 44(2), 120-126.
- Karney, B., & Bradbury, T. (1995). The longitudinal course of marital quality and stability: A review of theory, method, and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18, 3-34.
- Katkovsky, W., Crandall, V. C., & Good, S. (1967). Parental antecedents of children's beliefs in internal external control of reinforcements in intellectual achievement situations. *Child Development*, 38, 765-776.

- Katz, L. F., Kramer, L., & Gottman, J. M. (1992). Conflict and emotions in marital, sibling, and peer relationship. In C. U. Shantz & W. W. Hartup (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ccoby, E. E.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perspective. *American Psychologist*, 45, 513-520.
- Murray, E. J. (1968).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 Glence, Illinois.
- Pellegrini, D. (1985). Social cognition and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56, 253~264.
- Piaget, J. (1965). *The moral judgement of the child*. New York: Free Press.(Originally Published in 1932)
- Rahim, M. A. (1983). A Mearsure of style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 368-376.
- Renshaw, P. D., & Asher, S. R. (1983).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for social interaction. *Merrill-Palmer Quarterly*, 29, 353-374.
- Rose, A. J., & Asher, S. R. (1999). Children's goals and strategies in response to conflict with in a friendship. *Developmental Psychology*, 35, 69-79.
- Rubin, K. H., Stewart, S., & Chen, X. (1995). Parents of aggressive and withdrawn children. In M. Bornstein (ED.), *Handbook of parenting* (Vol. 1, pp. 255-284). Hillsdale, NJ: Erlbaum.
- Schaefer, E. S. (1959).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 226-235.
- Selman, R. L., Schultz, L. N., Nakkula, M., Baee, D., Watts, C., & Richmond, J. (1992). Friendship and fighting.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4, 529-558.
-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3rd ed.). CA: Brooks/Cole.
- Shantz, C. U., & Hobart, C. J. (1989). Social conflict and development: peers and siblings. In T. J. Berndt, & G. W. Ladd(Eds.),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New York: Wiley.
- Sheldon, A. (1990). Pickle fights: Gendered talk in preschool disputes. *Discourse Processes*, 13, 5-31.
- Stoner, J. A. (1978). *Manage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Symonds, P. M.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Y: Bureau of Public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 Thomas, K. W.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 L. Dunnette(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Chicago: Rand McNally.
- Weiring, C., & Lewis, M. (1991). The development of social networks from early to middle childhood: Gender differences and the relation to school competence. *Sex roles*. 25(3/4), 237-253.

부 록

1. 갈등해결전략 측정 척도
2. 부모양육행동 측정 척도

설 문 지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본 설문지는 평소에 여러분이 부모님과 가족, 친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르듯이 여러분들의 생각도 모두 다를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에는 틀리고 맞는 답이 없으며, 학교성적이나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응답한 사람의 비밀은 절대 보장될 것이고 선생님이나 부모님, 친구들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공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설문지는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대로를 솔직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

문항을 읽으신 후 여러분의 생각이나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되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4년 12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심리전공

연구자 : 천 태 복

지도교수 : 이 희 영

※ 성별 및 학년은 반드시 표시해 주세요.

■ 성별 : 남(), 여()

■ 학년 : ()

I. 다음은 가장 친한 동성 친구와 여러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친구와 의견이 다를 때 사람들의 행동은 다양하므로 여러분의 행동을 솔직하게 답해(○표) 주시면 됩니다.

■ 나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동성 친구를 마음 속에 떠올려 보세요.

다음 각 항목에서 “○○”은 그 친구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답해 주세요.

번호	문	항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	나는 서로 동의하지 않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덮어둔다.		1	2	3	4	5
2	나는 문제해결의 절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3	나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주장대로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4	나는 우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 내 생각을 ○○에게 맞춘다.		1	2	3	4	5
5	나는 우리 각자가 원하는 것의 일부는 양보하는 선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1	2	3	4	5
6	나는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관심사를 공개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7	우리 사이에 견해차가 있을 때, 나는 ○○가 원하는 쪽으로 생각을 굳힌다.		1	2	3	4	5
8	나는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토론하지 않는다.		1	2	3	4	5
9	나는 우리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와 협력한다.		1	2	3	4	5
10	나는 ○○가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려고 애쓴다.		1	2	3	4	5

번호	문항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1	처음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더라도 나는 결국 ○○가 원하는 쪽으로 나의 생각을 바꾼다.	1	2	3	4	5
12	나는 우리 사이에 불쾌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한다.	1	2	3	4	5
13	나는 나의 주장을 강력히 밀고 나간다.	1	2	3	4	5
14	○○가 자신의 입장에 대해 확고하다면, 나는 ○○가 하자는 대로 한다.	1	2	3	4	5
15	나는 의견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말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는 나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II. 다음의 문항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여러분에게 나타냈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기술편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말고 각 문항에 답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왼쪽에, 어머니는 오른쪽에** 구분하여 각각 그 정도에 따라 **○표** 해 주십시오.

■ 어머니와 아버지 중 어느 한 분이 안 계시면 계시는 분만의 해당란에 표시해 주십시오.

아버지				문 항	어머니			
전혀 아니 나	다소 아니 나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니 나	다소 아니 나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내가 방과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셨다.				
				2. 같은 일에 대해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었다.				
				3. 부모님의 결정을 무조건 따르게 하기보다는,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해 주셨다.				
				4. 나의 사생활에 대해서까지 잔소리하셨다.				
				5. 모든 면에서 남보다 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6. 나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셨다.				
				7. 내가 무언가 잘못하면 정도 이상으로 벌을 주셨다.				
				8. 나보다는 바깥일이 더 중요한 것 같았다.				
				9.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10. 같은 일이라도 어떤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안 치셨다.				
				11. 부모님이 화내는 이유를 잘 설명해 주셨다.				
				12. 작은 일에 대해서도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셨다.				
				13. 나에게 내 능력 이상의 높은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				

아버지				문 항	어머니			
전혀 아니 나	다소 아니 나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니 나	다소 아니 나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4. 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 하셨다.				
				15. 내가 잘못하면 때부터 드셨다.				
				16. 나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칭찬하거나 혼내는 일이 없었다.				
				17. 내가 밤에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는지 알고 계셨다.				
				18. 기분 내키는 대로 나를 대하셨다.				
				19. 칭찬이나 벌을 주실 때에는 내가 이해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				
				20. 내가 알아서 할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까지 잔소리 하셨다.				
				21. 나에게 최고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22.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용기를 주셨다.				
				23. 작은 잘못에도 치료를 받아야할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24.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셨다.				
				25.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셨다.				
				26. 손님이 오거나 외출했을 때, 나에 대한 태도가 평소와 달라 지셨다.				
				27. 나쁜 행동을 했을 때, 혼내기 전에 먼저 왜 그것이 옳지 못한가를 설명해 주셨다.				
				28.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하게 하실 때가 많았다.				
				29. 부모님의 기대가 항상 내 능력 이상이었어서 부담스러웠다.				
				30. 나에게 칭찬을 잘 해 주셨다.				
				31. 화낼 때는 주위에 아무거나 손에 닿는 대로 들고 심하게 때리셨다.				

아버지				문 항	어머니			
전혀 아니 다	다소 아니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전혀 아니 다	다소 아니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32. 내가 필요할 때 곁에 없으셨다.				
				33. 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일보다 공부에 더 열성적이셨다.				
				34.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				
				35. 심하게 때려서 내 몸엔 항상 멍이나 상처가 있었다.				
				36. 내가 아플 때에도 귀찮아하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셨다.				
				37. 너무 걱정하셔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었다.				
				38.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겨야 한다는 걸 강조하셨다.				
				39. 상처가 남을 정도로 심하게 때리셨다.				
				40. 보통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도 불안하다고 못하게 하셨다.				
				41. 내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왜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해 주셨다.				
				42.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셨다.				
				43. 나에 대해 덜 걱정하셨으면 하고 바란 적이 있다.				